

전북도내 최대규모 백제고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 예고

문화재청, 정읍 은선리
도계리 고분군 2곳

정읍시는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이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井邑 隱仙里와 道溪里 古墳群)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영원면 일대에는 2005년과 2013년 두 차례의 정밀지표조사 결과 반경 2km내에 275여 기의 백제고분이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이번 사적 지정 예고 대상은 영원면 은선리와 덕천면 도계리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백제 황혈식 석실분 56기이다. 이 고분군은 전북도내에 위치한 백제고분으로서 지금까지 확인된 것 중 최대 규모이다. 황혈식 석실분이 밀집돼 있어 이 지역 백제 지방통치의 영역 확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곳에 분포하고 있는 고분은 주로 백제의 사비기 고분이 대다수이지만 일부 웅진기 고분도 확인되고 있어 웅진기~사비기로 이어지는 백제 황혈식 석실분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인근에 있는 고사부리성(사적 제494호)과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미한계 분구묘, 중



정읍시는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이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井邑 隱仙里와 道溪里 古墳群)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방과의 관계 등으로 앞으로 백제의 중앙과 지방, 대외관계, 정치세력의 변천 등의 연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한편 문화재청은 30일 간의 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정(假指定) 문화재 사적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기종 작 '한, 둘러보내다'

흘날리는 천, 하늘·땅·바다로 구현

유기종 작가, 군산미술상 수상자 선정

제4회 군산미술상 수상자로 유기종 작가(사진)가 선정됐다.

군산미술상위원회(위원장 이승우)는 "군산에서 활동하는 작가들 중, 예술성과 지역미술 발전에 공헌해온 유 작가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휴열 작가와 박성신 군산대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유기종 작가는 회화(한국화)에서 사진으로 작업을 전향,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확고히 구축해 가고 있다. 흘날리는 천을 매개로 하늘과 땅(평야), 바다(새만금) 등을 구현하는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 작가는 '프로젝트 집·선·면'을 통한 순차적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전 작품에선 '존재의 무게' 'Seed·점의 기억'을 주제로, 형태가 없는 바람과 사랑(정) 영혼을 선과 점으로 표현한 작품을 보여줬다.



그는 보여 지지 않는 내면까지 담아내는 이러한 작품을 통하여 자연과 사람 그리고 지역의 문화 등을 이야기한다. 차기작을 선보이는 '면' 전시에선 성찰의 시간을 촬영과 설치 작업으로 담아낼 예정이다.

유기종 작가는 "전북지역의 지리적 특징을 모티브 삼아 '선(획)' 사진작업을 진행해 수상을 하게 됐다"면서 "상이 주는 기쁨보다는 선·후배 작가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더 크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군산미술상 수상자에게는 개인전 기회와 함께 작품 창작지원금 400만 원이 주어진다. /정해은 기자

전통문화 체험으로 겨울방학을 알차게

전당 '큰나무 키움교실' 운영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은 전통문화와 관련한 다채로운 체험교실을 마련한다.

전당은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26일까지 3주간, 초등학교 이상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지공예, 한지등공예, 침선(한복), 전통요리 등 4개 분야·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전통문화 큰 나무 키움교실'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큰 나무 키움교실'은 한지민속인형 만들기, 비누, 나만의 한지등과 전통 한복을 응용한 조끼 만들기 체험은 물론 한과와 떡, 눈사람 팔죽 등 전통 요리도 직접 만들어 보고 시식도 해보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송재명 사무국장은 "전통요리와 공예체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무엇보다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체험교실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한국전통문화전당(www.ktcc.or.kr) 또는 전주시 홈페이지



한국전통문화전당은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26일까지 3주간, 초등학교 이상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지공예, 한지등공예, 침선(한복), 전통요리 등 4개 분야·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전통문화 큰 나무 키움교실'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www.jonju.go.kr) 공연·행사란에서 신청서를 hanmail.net)이나 팩스(283-1201)로 제출하면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eszrdx28@

된다. /정해은 기자

전북여성백일장 수상작들 책 속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동인지 '글벗' 최신호 발간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윤애)는 동인지 '글벗' 최신호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제30집엔 이길상 작가의 초대시와 회원들의 작품, 그리고 제45회 전북여성백일장의 당선작이 실렸다.

이윤애 센터장은 "전북여성백일장이 지역 여성의 성원과 참여로 매년 성황리에 치러졌고, '글벗' 동아리 활동도 순수 생활문학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센터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 여성들의 문예 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여성백일장'은 지난 1973년 제1회 백일장을 개최한 이래로 2017년까지 600여 명의 수상자를 배출(이주여성 포함)했다. 이와 함께 1978년부터는 당선자들의 모임인 '글벗'을 운영했으며, 1986년 이래 꾸준히 동인지



발간을 이어왔다.

전북여성백일장 출신으로 등단한 작가는 50여명에 이른다. '글벗' 회장을 역임한 김현수(2010년·시 부문 장원) 씨는 2017년 시 '삼레터미널'로 전북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기도 했다.

역대 당선작 및 백일장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http://www.jbw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